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11

NOVEMBER 2016
vol.23
MONTHLY MAGAZINE



표지 작품 '바람'

때때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은 우리의 삶을 뿌리째 흔든다. 흔들려도 좋다.

그렇게 바람은 우리의 삶을 더 깊고 강하게 뿌리내리게 할 테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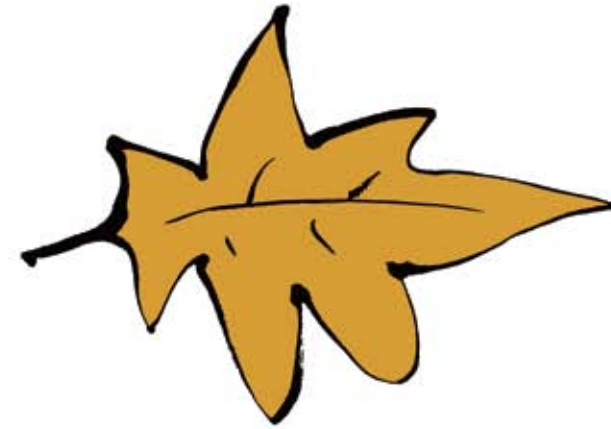
캘리그래피스트 이상현 작가

〈해를 품은 달〉〈타짜〉〈국순당 우국생, 백세주〉〈교촌치킨BI〉

2015. 한글날 기념 Google 한글로고 제작

2015. 한국브랜드 대상 수상 (한국CPI협회)

사.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부회장, 한국캘리그래피디자인협회 상임이사, 한국미술협회 이사,



낙엽 하나 슬며시
걸에 내린다
고맙다
살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김나인 '조용한 일'공에서
새터 이상현  쓰다

우린
왜 이렇게
바쁜 걸까요?



Why
are we
so busy?

바쁨이
미덕이
된
시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통화하자”, “요즘 제가 좀 바빠서”,
“바빠서 정신이 없네요”, “지금 바빠”……오늘 하루를 보내는 동안 이런 말을
한 번이라도 내뱉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바쁨’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왜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까?

현대인들은 바쁜 걸 미덕으로 생각한다.

‘바쁘다’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에는 ‘잘 나간다’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

그래서 “요즘 바빠 보이시네요?”라고 누군가 말하면

“요즘 되게 잘 나가시는가 봐요”라는 의미가 숨어 있다.

그래서일까. 바쁘게 사는 주위 사람들을 볼 때면

한가하기만 한 자신의 삶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한다.

바쁨이 미덕이 된 시대인 셈이다.

더군다나 스마트한 세상이 되면서 세상은 더욱 빠르고 바빠졌다.

아이러니 한 일이다. 스마트폰과 소셜 미디어 환경 덕분에

그 어느 세대보다 손가락 하나로 재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됐지만,

인간은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더욱 분주해졌다. 왜일까?



기술은 발전해도 바쁜 건 여전하다

영국 경제학자 메이너드 케인즈는 1930년 ‘100년 뒤에는 기술이 발전하고
살림살이가 나아져 노동시간이 주당 15시간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그의 예견은 절반만 맞았다. 기술의 발전이 눈부신 것은 분명하지만,
노동시간은 그리 줄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리적인 시간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여유를 갖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해 <The Atlantic>의 기사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이유를 든다.
① 누릴 것이 풍족해지는 데서 오는 ‘누릴 시간이 부족하다는’ 상대적 결핍, ② 모바일 워크
등의 기술발전으로 업무와 여가의 경계가 모호해짐, ③ 부자일수록 시간 낭비를 참지
 못하는 경향, ④ 성공을 위해 여가를 포기하고 기꺼이 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 그 설명이다.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동시에 신경 쓰고 처리해야 할 일이 늘어났다.
머리 좀 식힐까 하면 특이머 문자며 사정없이 울려댄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기사에 낚여 시간을 도둑맞기도 한다.
게다가 하고 싶은 일은 또 왜 이리 많은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욕망을 부추기는 것들이 산재해 있다. 비뺨 수밖에 없는 이유다.

왜 바쁜지도 모른 채 바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한 번쯤 쳇바퀴에서 벗어나 삶을 관조할 필요가 있다.

시간의 여백은 궁극의 행복이다

정신없이 바쁜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의 여백이다.
그렇다면 시간의 여백을 가질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다도(茶道)’는 그런 의미에서 꽤 괜찮은 ‘바쁨 탈출’ 방법이다.
옛 선비들도 즐겼다는 다도는 바쁨과는 거리가 멀다.
물을 끓이고, 찻잔을 데우고, 찻잎을 우려내고, 차를 따르고 난 뒤에도 기다림의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인사를 하고 나서야 겨우 한 입 마신다. 자세 또한 바르게 앉아야 한다.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겨우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다도는 다기를 준비하고
물을 끓이고 마실 때까지 약 30여분의 시간을 말없이 집중해야 한다.
제대로 된 차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로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집중해야 한다.
손님과 주인 사이에 대화는 필요 없다. 물과 온도 그리고 시간이 중정(中正)을 얻을 때
제대로 차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바쁜 사람에게 다도는 속 터지는 취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정신없이 바쁜 사람이 뒤따라오는 ‘정신줄’을 잡는데 다도만한 것은 없을 것이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과 시간의 흐름을
오롯이 느끼며 살아가는 것. 결국 선택은 자신의 몫이다.

중요한 것은 정신없이 바쁜 삶이 궁극의 행복을 가져다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바로 지금, 바쁜 시간으로부터 잠시 벗어나
나만의 시간 여백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CONTENTS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6년 11월호 vol.23
MONTHLY MAGAZINE. NOVEMBER 2016



08 행복을 주는 사람 | 여행연출가 김현 씨

은퇴 후 국내 부부 배낭여행가 1호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김현 여행연출가. 1989년 1월 1일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 부부가 함께 손 붙잡고 다닌 곳은 165개국. 그간 모아온 여행 자료들만 서재를 꽉 채우고도 남는다. 덕분에 국내에서 여행 자료가 가장 많은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다. 인터뷰 내내 함께한 김현, 조동현 부부의 행복한 여행이야기를 들어보자.



I 4 행복메신저 | 김현진 KEB하나은행 행당역지점

김현진 KEB하나은행 행당역지점 PB는 “손님의 이야기를 내 일처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게 오랜 단골손님을 만든 비결”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김현진 PB와 첫인사를 건넸을 뿐인데 마치 친구처럼, 자매처럼 집안 대소사까지 시시콜콜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솟아났다. 이러한 친근함이야말로 그녀가 가진 최대 장점이 아닐까.



36 연금포커스 | 함께 하는 노후, 커뮤니티형 주거 모델

‘나홀로’가 아닌 ‘함께’의 노후생활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형 주거 모델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다. 기존 형태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기능까지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커뮤니티형 주거 모델에 관해 살펴보자.



40 부동산 이슈 | 재건축 시장의 두 가지 이슈, 금융규제와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다. 당분간 이 인기는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 다만 올해에는 주택금융 규제강화, 내년에는 사업진도에 따른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 가능성 이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OPENING



02 행복을 위한 질문
우리 왜 이렇게 바쁜 걸까요?

INTERVIEW



08 행복을 주는 사람
부부 배낭여행가의 행복한 노후

INFO GRAPHY



I 2 한눈에 보는 연금 세상
고령자는 노후비용을 어떻게 조달할까?

행복미래설계



I 4 행복메신저
“손님과 가족처럼 지내는
친근함이 사랑받는 비결이죠.”

I 6 H씨의 행복설계
과다 실물자산의 조정을 통한
소득절벽기 이벤트 비용 마련이 관건

20 지식 플러자-세무
각국의 과세권 확보 경쟁 심화

22 지식 플러자-상품소개
은퇴 후 국민건강보험 가입·관리

24 Do! Dream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인간관계론’

26 Anti aging
수고했어, 오늘도

28 Alone, together
그림읽기의 즐거움

연금이슈포커스



30 연금 포커스
함께 하는 노후,
커뮤니티형 주거 모델

경제 TREND



36 경제 이슈
정치 리스크 높아지는
동유럽 신흥국

40 부동산 이슈
재건축 시장의 두 가지 이슈,
금융규제와 초과이익환수제

GLOBAL



44 지구인 이야기
인생 즐기는
새로운 어른의 시대

FUTURE



46 은퇴, 버킷리스트
배낭 하나 짊어지고,
자연 속으로 파고들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월간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2016년 11월호 vol.23 (통권 23호)

발행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등록번호 영등포, 라00424 등록일 2015.01.27 제호 행복Knowhow 간행 월간 발행인 배현기 편집인 김대익 발행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금융투자빌딩 12층 발행일 2016년 11월 7일
전화 02-2002-2200 팩스 02-2002-2610 홈페이지 www.hanaif.re.kr 편집위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박지홍 연구원, KEB하나은행 | 이종면 팀장, 최호재 팀장, 하나금융투자 | 이정철 부장, 하나생명 | 최춘석 차장
제작 및 기획 토크커뮤니케이션즈 전화 02-3452-3789 홈페이지 www.teum.co.kr



김현 • 여행연출가

부부 배낭여행가의 행복한 노후

은퇴 후 국내 부부 배낭여행가 1호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김현 여행연출가. 1989년 1월 1일 해외 여행 자유화 이후 부부가 함께 손 붙잡고 다닌 곳은 165개국. 그간 모아온 여행 자료들만 서재를 꽉 채우고도 남는다. 덕분에 국내에서 여행 자료가 가장 많은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다. 얼마 전 자료는 사회에 환원했다. 80세를 문턱에 둔 그는 은퇴 후 여행클럽 2Hyuns' Travel Club을 지금껏 이끌며 여행 작가, 여행 가이드, 여행 강사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인터뷰 내내 함께한 김현, 조동현 부부의 행복한 여행이야기를 들어보자.

“직장을 다니면서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늘 고민했어요. 내가 좋아하는 여행에 자꾸 마음이 끌렸습니다. 은퇴 후에는 꼭 여행가로 살겠다고 다짐했죠.”

그는 32년 동안의 방송국 생활을 퇴직하며 망설임 없이 여행길에 올랐다. 그것도 자유롭게 알뜰하게 여행하는 배낭여행가로.

여느 은퇴자들과는 달리 방향의 시간은 짧은 편이다. 이에 대해 그는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미리 고민하고, 은퇴 후 삶의 방향을 미리 정해둔 덕분인 것 같다”고 강조했다.

“퇴직 15년 전부터 여행 관련 자료들을 모아 아내와 분류하고 분석하며 준비했어요. 여행 관련 클럽이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며 오랜 기간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아내 조동현 씨의 역할이 크다. 여행연출가로의 제2의 인생을 응원했던 아내도 퇴직 후 같은 길을 걸기로 한 것이다. 본격적인 ‘부부 배낭여행가 제1호’가 탄생한 배경이기도 하다. 타이밍도 절묘했다. 사실 그 당시는 부부가 함께 해외에 나가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시절이었다.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해외여행 자유화’로 인생 2막의 화려한 서막이 시작된 것이다.

철저한 여행 계획이 행복한

부부 여행의 핵심

우선 여행경비 등 은퇴 후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퇴직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퇴직금을 생활비, 자녀 결혼자금, 여행비의 3등분으로 나눠 알뜰하게 활용했으며, 여행 경비는 최소한의 비용만 사용했다.

“여행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 별 두 개 이하의 숙박 시설을 이용하고, 빵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치밀한 여행 계획입니다.”

저렴한 비용의 배낭여행을 위해 부부는 여행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다. 10일 여행을 위해서는 100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여행 원칙을 지금껏 지키고 있다.

“전반적인 여행 계획은 제가 하고, 먹거리, 비용 등 세세한 것은 아내가 말합니다. 여행 계획이 우선되어야 여행이 풍성해집니다. 함께 여행하는 아내와의 마찰도 줄일 수 있고요.”

혹자는 나이 들어 왜 사서 고생이냐고 말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나이 들면 편안하고 우아한 여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오히려 나이드 사람들이 배낭여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행 클럽, 문화 커뮤니티 20년 운영

단순히 즐기는 여행이 아닌 여행을 통해 새로운 인생의 기회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는 여행 클럽 2Hyuns' Travel Club을 아내와 함께 이끌어오고 있다. 젊은 사람들도 손수 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단체를 인솔하여 해외여행을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건만 그들은 20여 년을 여행객들과 함께 하고 있다. 심지어 대퇴부 골절상을 입고서도 휠체어로 여행을 강행한 일은 그의 여행에 대한 열정을 짐작할 수 있는 일화다.

블로그(http://blog.naver.com/h_kim)도 운영한다. 가족의 도움을 일부 받고 있지만, 부부의 여행 블로그는 다양한 여행 관련 정보들이 가득하다.

이러한 열정은 자연스럽게 책 출판으로도 이어졌다. ‘해외여행에 꼭 필요한 158가지 도움말’, ‘여보, 우리도 배낭여행 떠나요’, ‘김현, 조동현의 세계도시기행’ 등 출판한 책만 5권이 넘는 등 전문여행 작가 못지않다. 덕분에 라디오, TV에도 출연하는 등 유명세를 치르기도 했다.

“여행하며 낯선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일은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죠. 더구나 부부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런 좋은 시간, 기회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하며 살고 있죠.”

은퇴 후 행복 결정하는 5가지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는 5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건강, 경제적 자립, 일, 재미, 친구가 그것이다.

“저도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사실 60세를 삶의 종착지로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모든 준비를 해왔죠. 가족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고, 영정사진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부음 명단도 만들어뒀죠.”

사실 그는 오랜 지병인 당뇨를 앓고 있었다. 인터뷰 당일에도 컨디션이 좋지 않았지만, 전혀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열정과 에너지가 가득했다. 평소 규칙적인 식이요법, 운동, 여행으로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다고.

건강뿐 아니라 경제적 자립, 일, 재미, 친구도 은퇴 후에는 중요하다. 퇴직금 관리로 노후 자금을 마련했고, 여행 커뮤니티, 문화 커뮤니티인 문화산책 ‘청류회(淸流會)’를 이끌며 사람, 세상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 청류회는 월 1회 연극, 영화, 음악, 오페라 등을 함께하는 문화단체. 이 모

임도 20여 년을 한결같이 유지하고 있다.

사실 누구나 행복한 은퇴 생활을 계획하지만 모두 행복하지만은 않다. 이유는 계획한 것들을 실천하며 도전하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나이가 들수록 실천하기가 힘들어요. 도전이 두렵지 않았던 건 부부가 항상 함께였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은퇴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서 대화하며 부부가 함께 방향을 정했습니다. 함께 준비하고, 격려하며 계획들을 현실화시켜 나간 것이죠.”

아름다운 노부부의 원만한 부부관계의 비결이 궁금했다. 부부는 단연 원활한 대화를 꼽는다. 젊은 시절부터 부부는 산책하며 대화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 스킨십과 격려와 칭찬,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함께 꿈을 가꾸며 돈독한 부부애를 과시하고 있다.



늘 배우고 작은 일에도 성실히 하는 삶이 중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여행의 소중한 추억들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기 위해 함께 쉽 없이 움직일 거예요.”

그는 자신이 좋아하면서도 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에 매진한다면 얼마든지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늘 배우고 작은 일에도 성실히 하는 삶은 더욱 큰 기쁨과 사랑을 선물로 줍니다. 조금 손해 보며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요.” 아내 조동현 씨의 얘기다.

김현, 조동현 부부는 평생 모든 여행 관련 자료들은 몇 년 전 거처를 옮기면서 영종도의 김찬삼 세계여행박물관, 인천 부평의 샤미나드 노인요양소, 고려대학교 국문학 연구실,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하기도 했다.

세상에서 받은 모든 것을 다시 아름답게 되돌려주려는 노부부의 일과 사랑, 여행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새 행복이 곁에 다가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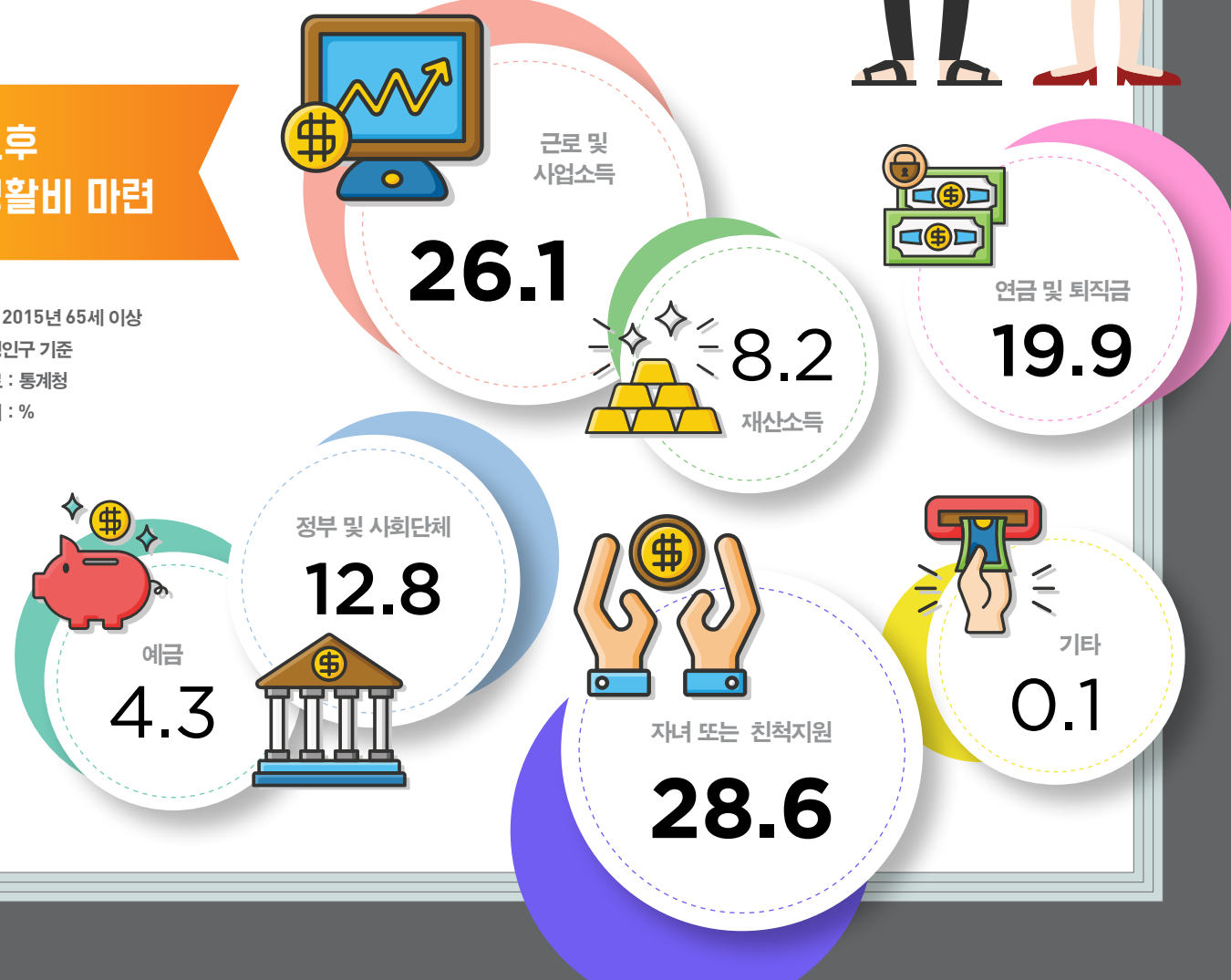
고령자는 노후비용을 어떻게 조달할까?

고령층은 연금 및 퇴직금을 통해 평균적으로 생활비의 19.9%를 조달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 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 월평균 29만원 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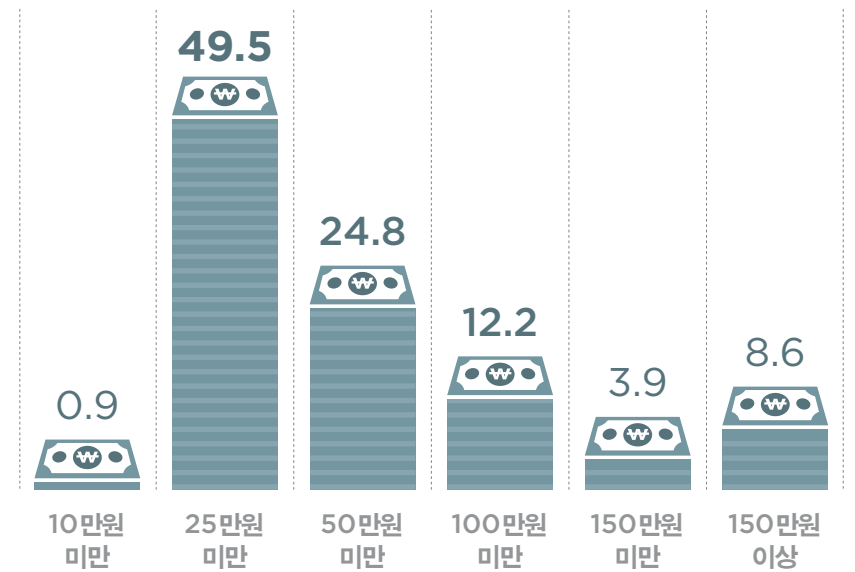
노후 생활비 마련

주 : 201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기준
자료 : 통계청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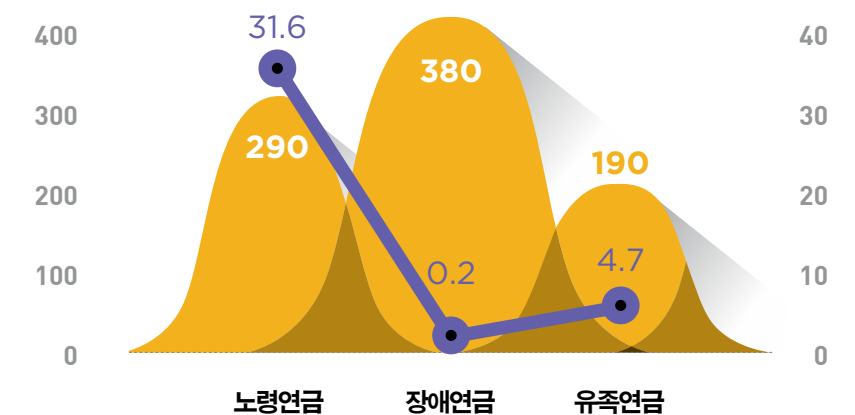
고령층 월평균 연금 수령액

주 : 1) 2016년 5월, 55~79세 기준
2) 공적연금, 기초연금, 개인연금 등 정부 및 개인에 의해 조성되어 수령한 월평균 금액 기준
자료 : 통계청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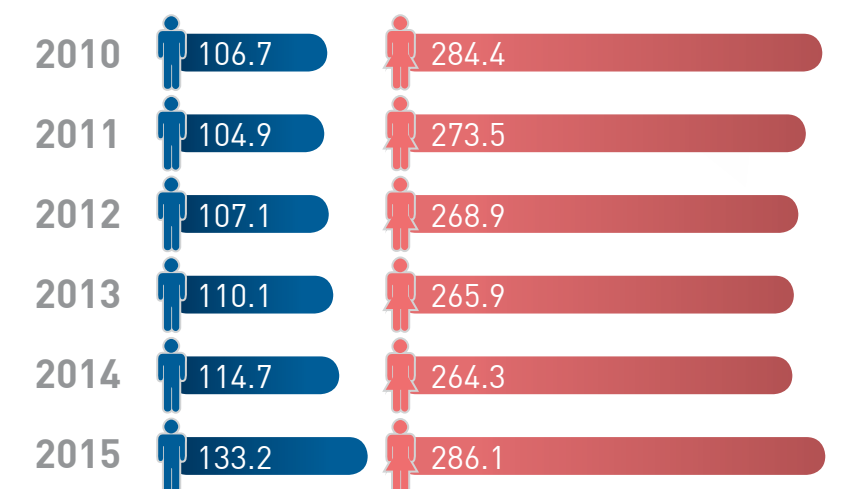
고령자의 국민연금 수령

주 : 수급비율은 고령인구대비 비중
자료 : 국민연금통계연보(2015)
단위 : 천원(좌), %(우),
■ 월 수령액(좌)
● 수급비율(좌)



고령자의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단위 : 천명





“손님과 가족처럼 지내는 친근함이 사랑받는 비결이죠.”

김현진 PB
KEB하나은행 행당역지점

김현진 KEB하나은행 행당역지점 PB는 “손님의 이야기를 내 일처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게 오랜 단골손님을 만든 비결”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김현진 PB와 첫인사를 건넸을 뿐인데 마치 친구처럼, 자매처럼 집안 대소사까지 시시콜콜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솟아났다. 이러한 친근함이야말로 그녀가 가진 최대 장점이 아닐까.

“24년 전 하나은행에 입사했을 때부터 VIP 자산관리 업무를 주로 담당했었습니다. 제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 당시 하나은행은 주로 VIP 위주로 손님이 많을 때였고요. 오랫동안 VIP 고객들을 상담했던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좋은 성과를 내는 비결에 대해 특별한 능력은 없었다고 말하는 김현진 PB. 하지만 그녀와 잠시라도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눠보면 금세 그녀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누구라도 편안하게 마주 앉아 대화에 빠져들게끔 만드는 매력 말이다.

“손님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단 몇 초 안에 결정되는 첫 인상도 중요하지만, 보면 볼수록 끌리는 매력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은행 업무를 처리해드리다고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편하고 가까운 친구이자 가족처럼 다가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그녀의 타고난 친근함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더해져 더 빛을 발하고 있다. 김 PB는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은행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은 가장 먼저 취득해왔다. 현재 15개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고, 연말에는 외환전문역 2종 취득을 위해 준비 중이다. 무엇보다 손님과 신뢰를 쌓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단골손님들의 투자상품이나 금융상품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숙지하는 일이다.

“단골손님들의 투자상품은 거의 숙지하고 있어요. 손님들보다 만기일이나 투자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 더 많이 파악하고 미리 알려주기도 해요. 사실 하나은행의 전산망이 워낙 잘 돼 있어서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손님보다 손님의 상품을 더 세세하게 파악하고 친근하게 상담을 진행하는 게 신뢰의 바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행복메신저
에피소드

10년 전 방배동 지점에서 인연을 맺은 손님이 있었어요. 다른 지점으로 갔다가 승진을 하면서 다시 그 지점에 발령이 나서 가게 됐는데, 저를 기억하고 찾아 주시더라고요. 그 인연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손님이 멀리 오시기 힘든 만큼 전화로 그분의 상품을 지속해서 관리해드리고 있어요. 저를 잊지 않고 찾아주시는 손님들 덕분에 힘들었던 순간을 잊고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후준비를 위한 TIP

1. 자신의 타임스케줄을 짜라

자신의 연령별로 퇴직 전, 국민연금 수령 전, 국민연금 수령 후로 나눠서 생각해보자. 자산별로는 금융자산, 부동산, 월급으로 나눠 매달 현금유입 계획이 필요하다. 사업소득이나 급여로 인해 매달 꾸준한 현금유입이 가능한 경우 타임스케줄을 통해 관리하지 않으면 수입이 끊기는 시점에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다.

2. 신노후 준비전략을 4층 보장으로 준비하자

기존에 3층 연금제도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해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여전히 불안하다. 아무리 3층 연금으로 준비를 해도 일정기간 지나면 부족해질 수 있다. 여기에 주택연금을 더해 4층 보장으로 노후를 준비하자.

3. 보장성보험의 보장 나이와 보장 범위를 체크하자.

지금 갖고 있는 보장성보험 중 특히 암보험을 체크하면 보장나이가 60세로 끝나는 보험이 의외로 많다. 100세 시대, 적절한 보장으로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행복메신저
팁

과다 실물자산의 조정을 통한 소득절벽기 이벤트 비용 마련이 관건

H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 후 중소기업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가정주부인 부인과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다.

H씨는 30년간 적지 않은 근로소득,

아파트 외 8억원 상당의 부동산,

매월 임대소득 400만원 등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녀들의 교육비, 두 자녀의 결혼 비용,

3억원 상당의 담보대출 상환까지

고려할 때 걱정이 앞선다. 노후 대비 안정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전략은 무엇일까.



자녀 결혼비용 등 향후 발생할 목돈 지출로 인해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감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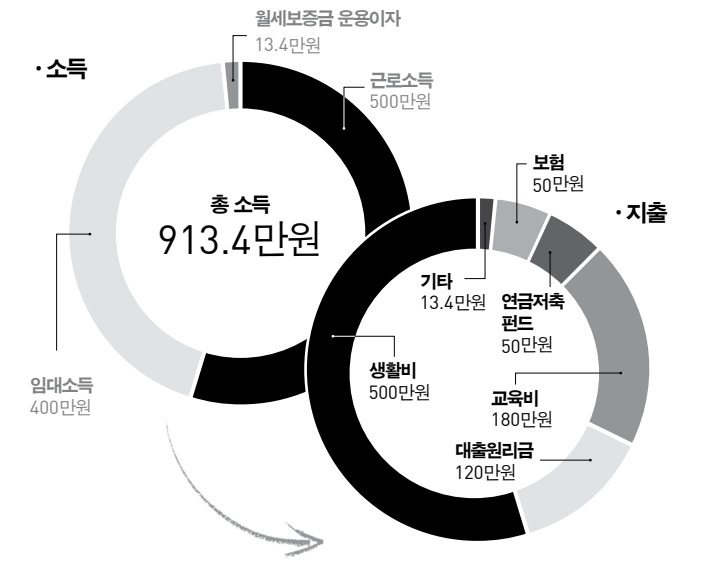
H씨(만 58세)는 최근까지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다 퇴직 후 중소기업 임원으로 재취업했다. 가정주부인 부인과 슬하에 만 27세, 25세 자녀 2명이 있다. 첫째 자녀는 현재 국내에서 박사과정을 진행 중이며, 둘째 자녀는 석사과정을 진행 중이다.

H씨 부부는 서울에 6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3억원 상당의 빌라를, 경기도에는 5억원 상당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금융자산으로는 연금저축펀드 1억원, 연금보험 5,000만원 등 연금자산 1.5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부채로는 보유 중인 아파트를 구입할 때 받은 3억원의 담보대출, 월세 보증금 8,000만원이 있다. 매월 현금흐름을 살펴보면 H씨의 근로소득 500만원, 임대소득 400만원, 월세 보증금 운용에 따른 이자(13.4만원) 등 총 913.4만원의 수입이 들어오는 반면 생활비 500만원, 대출원리금 120만원, 교육비 180만원, 연금저축펀드 50만원, 보험 50만원(연금보험 40만원, 보장성 보험 10만원), 기타 13.4만원¹⁾ 등 총 913.4만원의 지출이 이뤄지고 있다.

H씨는 30년간 대기업에서 재직하는 동안 적지 않은 규모의 근로소득을 받아 잘 운용하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외 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매월 임대소득 400만원을 받고 있어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아직 자녀들의 교육비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며, 혼기에 가까워진 두 자녀의 결혼 비용(1인당 1.5억원 예상)과 함께 3억원 상당의 담보대출 상환까지 고려할 때 추가로 어떠한 은퇴 준비 전략이 필요한지 궁금한 상황이다.

현재 재산 및 소득흐름

· 자산	아파트	6.0억 원
	실물자산	8.0억 원
	연금저축펀드	1.0억 원
	일반연금 등	0.5억 원
· 부채	주택담보대출	3.0억 원
	월세보증금	0.8억 원
· 순자산		11.7억 원



노후 생활 위한 준비는 충분하나

소득절벽구간의 유동성 부족이 문제

H씨는 재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에서 2년 뒤 은퇴할 예정이다. 현재 H씨 부부는 생활비로 500만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은퇴 후에도 현재 수준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 우선 미래 현금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은퇴 후 수입을 살펴보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확보되는 임대소득(월 400만원)과 월세 보증금 운용에 따른 이자(월 13.4만원 수입)은 앞으로도 계속될 예정

이다. 그리고 은퇴 직후 10년간 월 175만원 규모의 개인연금을 받으며, 만 65세부터는 월 150만원 규모의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퇴직연금의 경우 대기업에서 퇴직하면서 일시금으로 수령한 후 부동산 구매에 활용했기 때문에 향후 받을 것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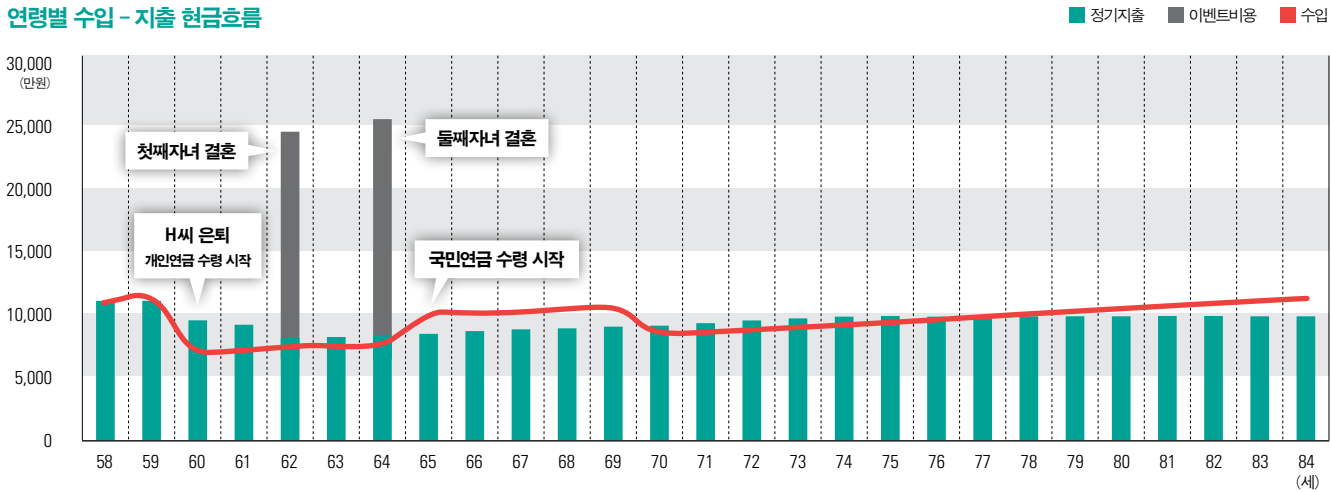
H씨 부부의 은퇴 준비 상태 파악을 위해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²⁾을 살펴보면, 은퇴 직후인 만 60세부터 둘째 자녀가 결혼하는

1) 1년 만기 국채수익률 2% 수준으로 운용하는 것을 가정

2) 물가상승률은 2.0%를 가정하고 수입은 소득에 연금 수금액이 포함되며, 지출은 생활비, 교육비, 보험료 등이 포함. 한편 고령으로 접어들수록 필요 생활비가 적게 소요됨을 감안해 75세부터 발생하는 노후생활비는 물가상승분을 추가적으로 반영하지 않음

만 64세까지 자금 부족 현상이 지속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두 자녀가 결혼하는 만 62세, 만 64세에 큰 지출액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현재 자산포트폴리오와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을 종합해보면 자산 측면에서는 충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포함해 오피스텔과 빌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말이다. 하지만 현금 흐름 측면에서 보면 자녀 결혼과 같은 특정 이벤트에 대비할 수 있는 유동성 있는 금융자산이 부족하다. 따라서 자산 포트폴리오와 현금흐름 간 조정이 중요한 과제이다.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

종신혼합방식의 주택연금 등의 활용을 통해 대응

앞서 연령별 수입-지출 현금흐름을 살펴본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H씨 부부의 은퇴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녀 결혼비용 등 은퇴 직후 지출해야 하는 목돈을 마련해야 한다. 은퇴 직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자녀 결혼비용을 제하더라도 자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아 대출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지만, 자녀 결혼비용은 쉽게 해결 가능한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같은 시기에 발생하는 목돈 지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원활한 현금흐름을 위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으며, 본지에서는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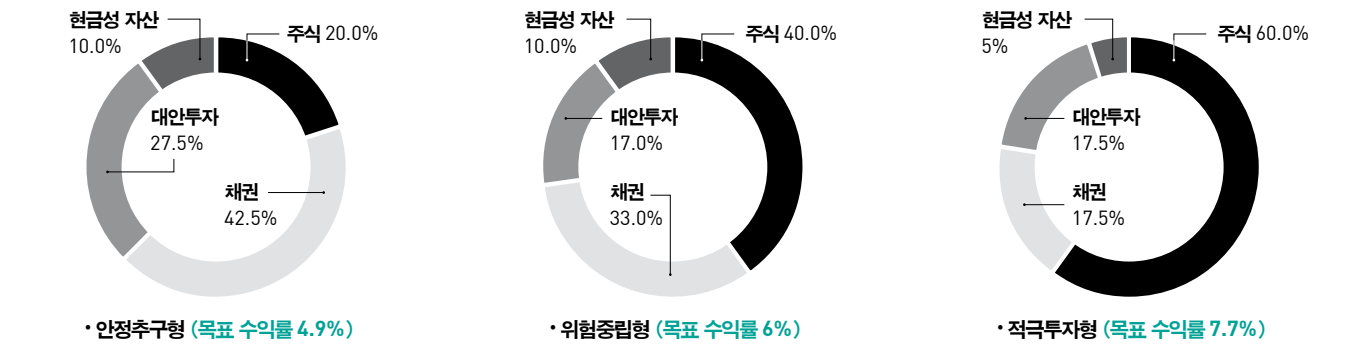
첫 번째로 목돈 마련을 위해 자산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필요하다. H씨는 가까운 미래에 3억원 상당의 빌라를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었으나, 향후 목돈 지출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대로 증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증여보다는 처분을 통해 확보한 현금으로 기존에 보유한 담보대출 3억원을 상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경우 매월 받는 임대소득이 소폭 감소할 수 있으나 담보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부담 감소로 오히려 향후 현금흐름이 더욱 원활해지게 된다. 따라서 우선 기존 대출 상환

을 위해 빌라를 처분한다. 다만 빌라를 처분해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자녀 결혼비용을 모두 충당하긴 어렵다. 은퇴까지 남은 기간이 2년에 불과한 상황에서 대출을 상환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현재 지출 구조상 약 3,000만원의 금융자산만이 축적된다. 자녀 결혼비용이 약 3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2.7억원이 부족하며, 이를 위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추가로 조정하거나 대출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기존 자산포트폴리오와 현금흐름을 크게 해지치 않는 선에서 추가적인 조정방법으로 가장 안정적인 수단은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주택연금 중 종신혼합방식을 활용해 인출한도금액을 설정하면 현재 6억원 기준으로 60세부터 매월 71.1만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1.2억원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다. 따라서 빌라를 매각함에 따른 임대소득 축소분을 보완할 수 있을뿐더러 목돈도 함께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1.2억원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더라도 1.5억원이 추가로 부족하므로 이는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다. H씨의 경우 국민연금을 받는 65세 이후부터는 수입이 지출보다 커서 잉여 현금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향후 대출을 상환하는 데 있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방법을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향후 임대소득 및 연금 수급을 통한 수입과 노후생활비, 대출 원리금 상환비용 등과의 차로 발생하는 잉여 금융자산은 국제수익률 수준인 2%로 운용해도 무방하다. 안정 추구형 포트폴리오의 목표수익률이 4.9%라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남은 실물자산인 오피스텔(5억원)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상속해주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오피스텔의 경우 노후 생활에서 임대소득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상속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투자 성향별 포트폴리오



• 주 : 하나금융투자에서는 '머니TALK'를 통해 매월 투자성향에 따라 '안정 추구형', '위험 중립형', '적극 투자형' 포트폴리오 제시 • 자료 : 하나금융투자, '머니TALK', 201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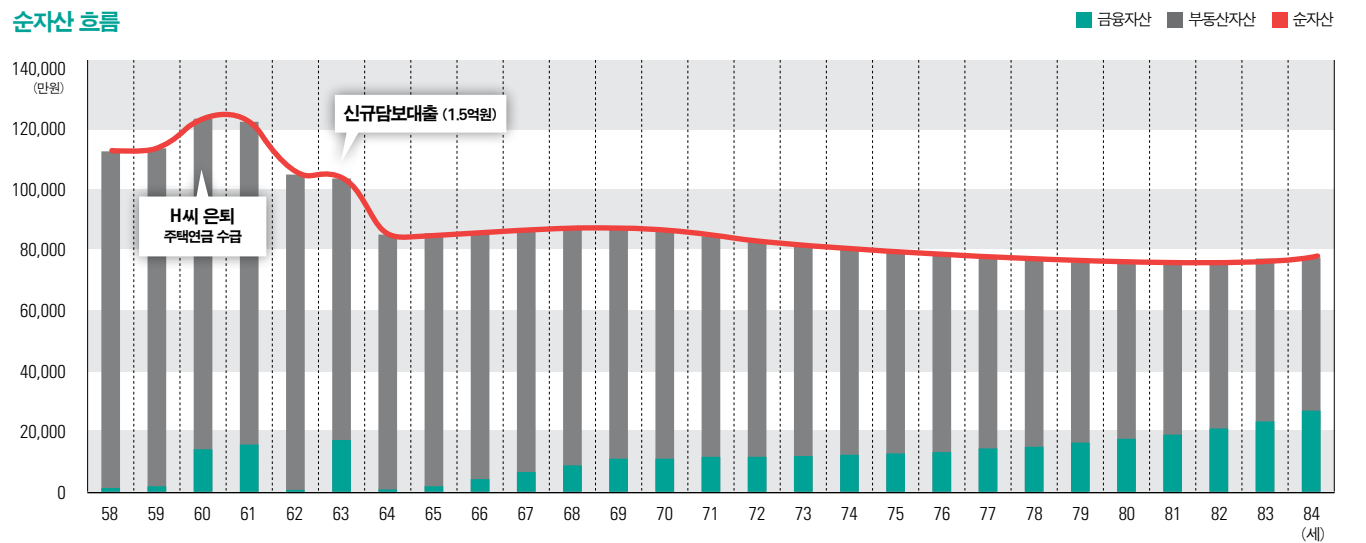
원활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사전에 목돈 지출을 예상하여 이를 마련해둘 필요

H씨 부부의 경우 은퇴 시기까지 맞벌이를 했으며, H씨의 직업 특성상 노령 연금이 많은 편이다. 따라서 노후에도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가능해 특별히 노후 준비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첫째 자녀의 유학비, 자녀들의 결혼 비용 등 은퇴 전후로 목돈 지출이 크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예금자산, 연금자산 등 기존에 보유하고 있

는 금융자산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중에서도 H씨와 유사한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은퇴 이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된다고 해서 금융자산 축적에 다소 소홀할 경우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져 이벤트성 목돈 지출이 어려워질 수 있다. 사전에 목돈 지출을 예상해보고 이를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에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자.

순자산 흐름



각국의 과세권 확보 경쟁 심화

최근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일명, FATCA)이 국회를 통과하며

국제적인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시스템이 갖추어졌다.

국가별로 다르지만, 해외재산 또는 금융재산을 미신고한 경우

향후 획득할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과세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각국의 과세당국에 신고되지 아니한 재산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글로벌 세금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이 울린 것이다. 몇 가지 큰 흐름을 알아보자.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국회 통과

첫째로, 올해 9월 7일 중요한 비준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한·미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일명, FATCA ;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이 협정의 국회비준으로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등 전 세계 약 120개국이 참여하는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가 사실상 구축된 것이다

위 비준안 통과 의미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해할 사항이 있다. 경제불황에 따른 과세권 확대를 위한 각국의 정책변화이다. 전 세계적인 경제불황으로 각국에서는 과세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왔는데, 그 선두주자는 미국이다. 오바마 정부는 미국 납세의무자의 역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세계 금융회사들이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5만 달러 이상 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국 국세청(IRS)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법률을 도입했다. 그것이 바로 FATCA라는 것이다. 이 법에 따르면 미국 외 국가의 금융기관들은 미국 과세당국인 IRS에 미국인의 금융계좌를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미국은 동 제도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각국 정부와 협정의 체결을 진행했고, 우리 정부도 작년 6월 FATCA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금융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 등으로 국회에서 1년 넘게 표류하던 비준안이 9월에 통과되었고, 이후 우리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들에 11월 말까지 미국에 제공할 계좌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를 미국 과세당국이 보유한 우리 국민 계좌정보와 12월 중에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양국간 역외 탈세 자료 공유를 통하여 탈세자에 대한 추적이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국 간 협정에 따르면, 미국 과세당국은 미국 내 은행의 연간이자 10달러를 초과하거나 미국 내 원천소득이 발생한 계좌를 가진 우리 국민의 금융정보(이자, 배당, 기타원천소득)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과세당국은 한국 내 개설된 5만 달러 초과 미국인 계좌정보나 25만 달러 초과 법인계좌정보를 미국에 제공해야 한다.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

(MCAA ; 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

미국의 FATCA 시행에 대응하여 OECD는 다자간 조세 행정 공조협약을 통해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 간에 정보교환을 할 수 있도록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이하, MCAA)의 체결을 추진했고, 2014년 10월 우리 정부도 OECD가 마련한 공통보고기준(CRS : Common Reporting Standard)에 따라 각국과 조세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하는 MCAA에 서명하였다.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MCAA 서명국은 2016년 10월 현재 총 84개국으로('17년 시행국 53개국, '18년 시행국 31개국), 우리나라는 '17년에는 네덜란드, 벨기에, 아일랜드 등 38개국('17년 시행하기로 서명은 했으나 해당 국가의 내부적인 비준절차 등이 마무리되지 못한 국가 18개국은 '17년에 교환 어려움)과 자동교환을 합의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18년부터는 스위스, 일본, 캐나다 등 31개국을 추가하여 금융정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한국-싱가포르,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 서명

싱가포르는 다자간 방식이 아닌 양자 간 방식으로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10월 14일 우리 정부는 싱가포르와 협정을 체결, 2018년부터 이름, 계좌정보, 소득유형 등 주요 금융정보를 매년(금융자산 거래내역은 '19년부터) 교환하기로 하였다. 1981년 발효한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방 요청 시 과세정보 등을 상호 교환할 수 있었지만, 이번 협정으로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정기적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이로써 양국 정보교환의 수준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

은퇴 후 국민건강보험 가입 · 관리

직장인들이 은퇴 후 가장 먼저 퇴직을 체감하게 되는 비용이 국민건강보험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퇴직자들의 61.1%가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 대비 많게는 3배 정도 인상된 보험료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는 본인과 직장이 보수월액의 3.06%씩 부담하였지만 직장 퇴사와 더불어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면서 본인이 자신의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부과되는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호에는 은퇴자가 신분변동으로 인해 가입하게 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직장퇴직자의 경우 지역 국민건강보험 자격 취득은 퇴사한 다음날부터 이뤄진다.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후 납입해야 할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 전월세 및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이 고려되어 산출된다. 소득은 연 500만원 초과자에 대해 75등급으로 세분되어 반영된다. 재산은 부동산 및 전월세를 포함한 금액에 대해 50등급으로 세분해 적용되고, 자동차는 배기량 등을 기준으로 7등급으로 세분해 고려된다.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은 가입자의 성별 및 연령, 재산, 자동차 연간세액 등을 고려해 30등급으로 세분해 반영된다. 이렇게 계산된 보험료는 경감 및 조정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보험료 경감은 65세 이상 노인이 있거나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 55세 이상 65세 미만 여자로서만 구성되어 있는 단독세대 등의 경우에 한해 최대 50%까지 경감될 수 있다. 조정의 경우는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이 확인될 경우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료를 연체할 경우는 미납보험료에 대해 최저 3%에서 최고 9%까지 추가적으로 가산되어 부과된다.

따라서 은퇴로 인한 신분변동으로 지역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될 퇴직자들은 높은 보험료 부담을 피하고자 한다면 지역 건강보험료 산출시 고려되는 자신의 소득, 전월세 및 자동차를 포함한 재산,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점검하고, 은퇴 후 생활에 맞게 적절하게 조정하여 대응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한다.

은퇴 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자격 취득일	-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퇴사한 다음 날)
건강보험료 부과	-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을 고려하여 부과 - 소득 75등급, 재산 중 부동산 및 전월세 50등급/자동차 7등급,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30등급으로 구분하여 고려
보험료 경감	-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70세 이상 노인 가입자만 있는 세대, 55세 이상 65세 미만 여자로서만 구성되어 있는 단독 세대 등에 대해 경감(10~50%)
보험료 조정	- 소득감소 및 퇴직, 폐업 등의 경우, 재산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경감 조정
연체료 부과	- 보험료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최저 3%에서 최대 9%까지 부과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



세제혜택 포인트

✓ 납입원금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연간 700만원 한도 × $\left[\begin{matrix} 13.2\% \\ 16.5\% \end{matrix} \right]$ (지방소득세 포함) 세액공제

※ 16.5%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500만원 이하)

✓ 퇴직금 및 추가불입한 적립금에 대한 운용 중 과세이연 효과

✓ 퇴직연금전용펀드로 낮은 펀드 수수료로 자산 증대 효과

※당사는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원리형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에 의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 다만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의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본 자료 기재된 집합투자증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조에 의한 적립금을 납입하는 퇴직연금 전용상품입니다. ※ 과세 기준 및 방법등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실시법 제 16-00004호(2016.02.01 ~ 2016.03.31)

1588-3111
www.hanaw.com

하나금융투자

수수료	* 가입 후 1년 경과시 10% 할인 적용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 1억 이하 0.20%	- 1억 이하 0.20%
- 1억 초과 0.175%	- 1억 초과 0.175%
가입조건	* 납입한도 : 연간 1,800만원 한도 / 연금저축, DC가입자 추가부담금 합산 기준 / 모든 금융기관 합산 적용함
- 퇴직연금 DB, DC, 기업형IRP 가입자	
- 퇴직연금에 퇴직급여를 적립한 자	

스마트폰으로 일상을 예술로 만들다

스마트폰, 고가의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의 10%도 채 쓰지 않는 대표적인 물건이다.

하지만 잘만 활용하면 스마트폰이 나른한 일상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기특한 물건이 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스마트폰 영상이 대표적이다.

영상 편집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몇 가지만 알면 이것만큼 쉽고 재미있는 것이 없다.

평범한 일상을 다큐멘터리로, 영화로, 예술로 만들 수 있는 스마트폰 영상. 흥미롭지 않은가!

과거에는 사진 촬영이 특별한 영역이었지만 스마트폰이 일상화가 되면서 이제 누구나 사진작가의 반열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셔터만 누르면 웬만한 퀄리티는 보장이 되니 사진 찍는 재미도 남다르다. 그러나 의외로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스마트폰 영상에 한 발 내딛기 위한 꿀팁을 소개한다.



사진/동영상 촬영을 위한 꿀팁

- 대부분 스마트폰에는 아웃포커스 기능이 있다. 촬영할 피사체를 살짝 터치하면 자동으로 아웃포커스가 된다. 전문가 못지않은 사진 작품도 가능하다.
- 동영상을 찍을 때는 움직임을 최대한 천천히 한다. 풍경이나 피사체를 빠르게 촬영하면 이를 영상으로 볼 때 다소 어지러울 수 있다.
- 동영상 촬영을 하다 보면 별생각 없이 1~2분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많다. 영상 편집을 목표로 촬영한다면 10~15초 내외로 촬영하는 것이 좋다. 편집에 수월하다.
- 촬영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촬영 화면 위에 카메라 모양 버튼(아이폰은 동그라미 모양)을 누르면 동영상과 동시에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영상 편집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사진과 달리 동영상은 편집하지 않으면 상당히 불품없는 영상이 되기에 십상이다. 적어도 약간의 자막과 배경음악이라도 넣어줘야 덜 심심해 보이는데, 이게 은근히 손이 많이 가는 데다 복잡해 일반인들에게 동영상 편집이 그리 쉬운 영역은 아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누구나 쉽게 동영상을 편집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동영상 편집 앱인 아이무비와 키네마스터가 그것이다.

- **애플의 아이무비** - 막강한 기능과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자랑하지만 애플 기기에서만 작동한다는 단점이 있다.
- **키네마스터** -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 대부분이 사용하는 안드로이드폰의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어 최근 동영상 편집 앱으로 각광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무료 버전으로도 주요 기능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어 구매 부담이 없다는 게 장점이다.

스마트폰 영상을 배울 수 있는 곳

* **스마트영상제작소 에듀큐(educu.kr)** 스마트폰 영상 제작에 관한 기본적인 교육과 스마트미디어 자격과정을 진행한다.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 영상 UCC 제작 과정도 수시로 진행한다. Tel. 070-4146-5241

* **50플러스(50plus.seoul.go.kr)**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50+ 세대를 위한 정책사업이다. 다양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영상과 관련해 수시로 교육을 진행한다. Tel. 02-2126-4697

mini interview

‘지나간 시간을 심폐소생 시키는 사람’

에듀큐 박정옥 대표



스마트폰 영상이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후 편집 과정을 거쳐 완성한 영상을 말합니다. 보통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은 많이 촬영하지만 그것을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 멋진 영상으로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어렵게 생각하곤 합니다. 조금만 배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말이죠.

UCC(User Creative Contents)도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UCC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대단한 콘텐츠가 아닙니다. 일상생활의 어떤 주제든 UCC로 태어날 수 있어요. 동영상 편집 앱을 다운 받고 1시간 정도 교육을 받으면 초등학교부터 시니어 분들까지 누구나 멋진 UCC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영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간을 살려 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진이나 동영상을 내 핸드폰에 저장만 하면 기억 속에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멋진 영상으로 만들어 유튜브나 다음팟과 같은 곳에 올려놓으면 가족이나 친구 등 누구나 영상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실시간 영상을 올리면 지금 이 순간의 일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도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의미를 담아 저를 ‘시간을 심폐소생 시키는 스마트한 여자’라고 소개하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을 심폐소생 시켜 보세요. 삶이 즐거워집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자존감은 '내가 내 마음에 얼마나 드는가'에 대한 답이라고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타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보다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에 집중해야 한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 그것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인생에 정석과 같은 교과는 없습니다.

열심히 살다 보면 인생에 어떤 점들이 뿌려질 것이고

의미 없어 보이던 그 점들이 어느 순간 연결돼서 별이 되는 거예요.

정해진 빛을 따르려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오직 각자의 점과 각자의 별이 있을 뿐입니다.

박웅현, '여덟 단어' 중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멈추고, 나에서부터 시작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왜 그것을 좋아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수고했어 오늘도’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나를 응원하고 위로하는 한 그 누구도 자신을 깃밟지 못한다. 오늘부터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고, 사랑하겠다고 결심해보자. 자신이 고치고 싶은 성격이나 행동, 습관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조차도 하나하나 다 사랑하기로 해보자.

막상 이러한 방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은 ‘불안’이다. 별 불일 없고 단점 투성이의 자신을 사랑했다가는 그대로 성장을 멈추고 정지해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이 있다. 나를 사랑하고자고, 나를 응원한다고 수백 번 되뇌다고 해서 자기애(自己愛)가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

진정으로 자신을 응원하고 위로하기 위해서는 자존감이 있어야 한다. 자존감이 중요한 이유는 자존감이 감정, 생각, 행동에 영향을 미쳐 자신감, 자기 사랑하기, 삶의 만족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꾸준한 연습과 실천만이 진정으로 자존감을 회복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 자존감을 실제로 높여주는 실천법 ...

‘나’의 마음을 챙기기 • 무엇이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지 관심을 갖고, 그것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할지 고민하자. 마음이 건강해지는 훈련을 시작하자. 문제의 시작은 연결에서 온다. 자책은 타인의 문제를 나에게서 원인을 찾을 때 생긴다. 나의 문제를 남에게 연결할 때 분노가 된다. 자기 문제로 지나치게 연결하는 습관은 예민함의 씨앗이 되며 자존감에도 치명적이다.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남의 일을 남의 일로 남겨두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 • 정신과 의사들이 ‘here and now’라고 부르는 원칙으로 지나간 문제나 앞으로 닥칠 문제를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할 일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이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과정과 비슷하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일어나 2정거장을 걸어서 버스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동안의 습관에서 벗어나 좋은 습관을 들이는 작업이다.

자기 전에 오늘 잘 한일에 대해 칭찬하기 • 하루를 뒤돌아 보며 오늘 내가 잘한 일을 스스로 칭찬해보고 자신을 응원해보자. 운동을 빠지지 않고 한 일, 저녁에 야식을 먹지 않은 일, 제때 보고를 드린 일, 중요한 일 한 가지를 끝낸 일 등 생각해보면 소소한 일이라도 떠오를 것이다. 이런 작은 실천을 칭찬하고, 응원하다보면 자존감도 향상되게 된다.

참고자료: 자존감수업 (윤홍균, 심플라이프)

그림읽기의 즐거움

외롭고, 힘들 때 그림이 말을 걸어온다. 반 고흐, 뭉크 등

깊은 사색을 이끌어내는 명화를 읽는 색다른 즐거움에 빠져보자.

삶의 가치, 살아갈 용기를 전하는 명화 제대로 즐기는 법

“내 생애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처음 시도한 그림 그리기가 나를 위로하고
구원하지 못했다면 이미 오래전에 내 삶은 지속될 수 없었을 것이다.”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에게 그림은 치유였다.

마흔 살 무렵 처음으로 그림을 그렸다.

헤세는 전문적인 그림 수업을 받지 않고 마음 가는 대로 그렸다.

그 과정에서 그는 어린 시절 신학도로서 느낀 중압감,

작가로서 느낀 부담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해방감을 맛보았다.

미술 작품에 담긴 가치는 생각보다 크다. 화가들의 저마다 인생의 숭한 순간들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미술 작품들을 본다는 건 분명 가치 있는 일이다.

미술 작품에는 화가들이 힘겹게 지켜낸 가치관이 담겨 있다. 사랑과 행복을 중요시했던 화가의 작품에는 풍요로움이, 시대를 고발하고 싶어 한 화가의 작품에는 강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으며, 우울했던 화가의 성격은 어두운 색조로 표현된다.

전문가들은 “그림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심정도 이해해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이고, 다양한 화가를 공부하는 것은 다양한 사람을 공부하는 일”이라고 조언한다.

그림은 아는 만큼 보인다. 우선 미술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작품을 비교 감상하다 보면 좋은 작품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이 어느 정도 생긴다. 작품을 볼 때는 스스로 질문을 던지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왜 이 색을 썼을까, 왜 이런 모양을 택했을까, 이 구도는 왜 이 주제와 어울리는 것일까 등의 의문을 갖고 작품과 대화를 시도해보자. 그림은 마음의 눈으로 봐야 보인다. 세계적인 명화라고 해도, 자신이 별 매력을 못 느낀다면 그냥 그런 것이다. 편안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작품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마음으로서의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대화하며 느끼다 보면 점차 마음의 눈이 열리고 이해를 통한 즐거움을 얻게 된다.

가까운 미술관, 갤러리를 적극 활용하자. 우리나라에는 약 120여 개의 미술관이 있다. 서울에서만 수백 개의 갤러리에서 매일같이 전시가 이뤄진다. 미술관은 보통 현대 작가 전시보다는 20세기 이전 작가들의 전시를 하는 경우가 많고, 입장료를 낸다. 갤러리는 그림 판매가 목적이므로 입장료를 받지 않으며, 그림을 설명해 줄 수 있는 큐레이터나 도슨트, 작가가 상주하고 있어 작품 감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시선이 멈춘 그림이 왜 좋은지 생각하자. 왜 좋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끌어내면 낼수록 작품이 더 재미있어진다. 어떤 색채가 매력적인가, 어떤 구도를 선호하는가 등 가까이서도 보고 멀리서도 보고 옆에 걸린 다른 작품들과 비교해서 보면 더 좋다. 이렇게 작품에서 자신이 매력을 느끼는 요소가 무엇인지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소위 말하는 작품을 보는 눈과 자신만의 취향이 생긴다.

펠드먼의 그림 감상법 4단계

01
-
서술

작품의 작가는
누구인지 그리고
사용된 재료는
무엇인지와 표현기법
등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다.

02
-
분석

작품 안에 보이는
시각적인 요소들
(색, 질감, 형태 등)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색감에 대해
먼저 호불호로 반응을
보이는 편이다.

03
-
해석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고 작품의
역사적인 또는
작가의 개인
인생사적인 배경
등을 찾아보면
작품의 내용을 좀 더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

04
-
판단

작품의 미술사적
의의나 장단점
등에 관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 그리고
미술평론가들의
평 등 여러 단계를
통해서 가치를
평가해본다.

함께 하는 노후, 커뮤니티형 주거 모델

‘나홀로’가 아닌 ‘함께’의 노후생활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형 주거 모델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다. 기존 형태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기능까지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커뮤니티형 주거 모델에 관해 살펴보자.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657만명으로 전체 인구 5,107만명의 13.2%를 차지한다. ‘고령사회(Aged Society)’의 기준으로 삼는 고령인구 비율 14%가 코앞에 다가온 셈이다. 또한 독거노인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5년에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10%를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인간의 생존 요건인 의식주 가운데 노후에 어디에서 살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노화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기능이 쇠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노후 주거 모델에 관한 관심이 아직 부족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은퇴 후 주거 대안으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커뮤니티형 주거모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노후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형 주거모델이 부상

커뮤니티형 주거모델이 학술적으로 정의된 것은 아니다. 다만, 노인 단독 또는 노인 부부만 살지 않고 공동체를 추구하면서 노후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주거 방법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는 ‘실버타운’이 가장 유사한 개념으로, 해외에서는 미국의 은퇴자 커뮤니티(RC: Retirement Community), 일본의 ‘유료노인홈’, 유럽의 ‘코하우징’ 등 다양한 사례가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 은퇴, 액티브 시니어 출현 등 구매력 있는 노인층이 증가하고, 정부에서도 커뮤니티형 주거모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미국의 커뮤니티형 주거모델, 은퇴자 커뮤니티 (Retirement Community)

미국의 대표적인 커뮤니티형 주거모델은 은퇴자 커뮤니티(Retirement Community)이다. 1960년대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 처음 형성되었으며, ‘연속보호형 은퇴자 커뮤니티(CCRC: Continuous Care and Retirement Community)’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발달하였다. CCRC에서는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모든 범위의 주거와 주거 서비스, 건강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노인전용주택을 중심으로 질병예방센터, 복지회관, 의료기관, 스포츠시설, 기타 보호시설을 갖추고 보통 500~1,000세대가 거주한다. 현재 약 3,000여 개의 CCRC가 있으며, 민간기업이 약 80%를 운영하고 있다. CCRC에는 노인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다양한 공간이 있다. 건강한 노인을 위한 독립생활공간, 약간의 보조를 통해 생활을 영위하는 보조생활공간,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어 전적인 지원이 필요한 전문요양소, 치매를 다루는 치매요양시설, 재활을 돕는 재활센터 등이 있다.

최근에는 대학과 연계된 ‘대학 연계형 은퇴자 커뮤니티 (UBRC: 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가 부상하고 있다. UBRC는 대학이 사업주체가 되어 은퇴자 커뮤니티를 직접 운영하거나, 은퇴자 커뮤니티가 대학의 다양한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은퇴자 커뮤니티와 대학 모두 시너지를 얻는 구조이다. UBRC가 증가하는 이유는 은퇴자의 니즈와 대학의 니즈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은퇴자들은 자녀 교육 등의 부담에서 해방되면서 경제적 여유가 증가하고 여유 시간 증가에 따라 지적 호기심을 채우려는 니즈가 커졌다. 대학 입장에서조차 자녀 수 감소 등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시니어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보완할 수 있어 이해가 맞아떨어진다. 미국의 UBRC 사례로는 스탠퍼드대학의 ‘클래식 레지던스(Classic Residence)’, 플로리다대학의 ‘오크 해먹(Oak Hammock)’, 다트머스대학의 ‘켄달 앳 하노버(Kendal at Hanover)’ 등이 있다. 특히 ‘클래식 레지던스’는 호텔 기업인 하얏트가 운영하고 있어 최고급 수준의 커뮤니티이며, 그 외는 대학재단 비영리법인(NPO)이 운영을 맡고 있어 고객의 신뢰가 높다.

일본의 커뮤니티형 주거모델, 유로노인홈과 그룹 리빙(Group Living)

일본은 빠른 고령화에 대응하여 일찍부터 다양한 고령자 주택정책이 등장했다. 일본의 노인주택은 크게 양호노인홈, 경비노인홈, 유로노인홈으로 분류되는데, 의료 및 생활편의시설이 구비된 유로노인홈이 1990년대 이후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됐다. 과거 일본 고령계층은 퇴직 시점에 자연환경을 추구하며 교외로 이동하였으나, 최근에는 교통이 편리하고 쇼핑 등 근린시설이 발달한 도심형 유로노인홈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일본의 대표적인 유로노인홈으로는 닛포리 커뮤니티 하우스, 차밍스퀘어(Charming Square) 등이 있다. 닛포리 커뮤니티는 지하 1층 지상 12층의 건물 형태로, 시니어 하우스와 일반세대가 각각 절반을 차지하고 노인과 젊은 세대가 함께 거주한다. 차밍스퀘어는 2008년 동경시 미나토구에 설립된 유로노인홈으로 지하 2층, 지상 10층 건물에서 160세대가 거주하며, 고령자 및 치매 치료를 위한 도심형 실버타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독거 노인의 노후를 위해 공유공간과 독립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그룹 리빙(Group Living)도 인기를 얻고 있다. 그룹 리빙은 여러 세대가 독립된 주거 외에 식사나 보육 등의 공간을 공유하는 거주 형태다. 일본에서는 1985년 ‘대안주택프로젝트연구회’에서 도시형 콜렉티브 하우스(Collective Housing) 운동을 시작한 것이 효시다. 그룹 리빙은 65세 이상 건강한 사람만 입주할 수 있으며, 정부에서 입주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이 함께 존재하므로 개인적인 생활을 보장받으면서도 공유공간에서 함께 하는 생활을 통해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혈연관계를 넘어 여성, 친구, 또는 젊은 세대와 함께 사는 등 여러 테마의 그룹 리빙 하우스가 존재한다. 운영 주체도 민간, 비영리, 공공 등으로 다양하다. 그룹 리빙 하우스인 ‘강강모리’의 경우, 독립공간은 각 실과 실내 개인화장실이며, 공유공간으로 부엌, 식당, 게시판, 테라스, 목공실, 텃밭, 세탁실, 아이들 공간이 제공된다.

유럽의 공동 주거 모델, 아마릴리스(Amaryllis), 코하우징(Co-housing)

고령사회를 먼저 겪은 스웨덴, 덴마크를 비롯하여 독일에서는 노후를 위한 다양한 공동 주거 모델이 존재하고 있다. 독일의 대표적인 공동주거 모델로는 ‘아마릴리스(Amaryllis)’가 있다. 2007년 설립된 이후 현재 70여명이 거주 중이다. 3개 건물에 33개의 분리된 주거공간과 공동공간이 있는 형태로, 공동 주방, 게스트룸, 워크샵룸 등을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세대 간 상부상조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얻고 있다.

덴마크의 ‘코하우징(Co-housing)’은 사생활과 공동체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마을이나 연립주택에서 단지 중앙에 배치된 공동 공간을 이용하면서 서로 왕래를 이어간다. 30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있어 복합주택이기 보다는 마을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다만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주택을 개조하고 민간 운영이 많아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단점은 있다.



아마릴리스 주거 공동체
자료: www.amaryllis-bonn.de

덴마크 코하우징 Drejebanken에서의 식사
자료: www.drejerbanken.dk

국내에서는 최근 도심형 실버타운의 인기가 상승

국내에서 은퇴자 커뮤니티는 실버타운으로 잘 알려져 있다. 본래 실버타운은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건강한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의 편의와 문화생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전용주택으로 통용된다. 그러나 국내 실버타운은 법적 용어가 아니며, 선진국과 다르게 변질한 것이 현실이다. 가령 노인들만 생활하는 주택이나 시설은 노인복지법에 근간하여 설립되어야 하며, ‘노인복지주택’ 혹은 ‘양로시설’ 형태로 설립된다. 그러나 최근 의료서비스에 더욱 중점을 둔 요양원 성격의 시설에도 실버타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때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실버타운은 만 60세 이상 노인, 그 배우자, 미성년 자녀와 손자녀가 함께 입주할 수 있으며, 대부분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이 없어 비용 부담이 큰 편이다. 입주보증금은 3.3㎡당

300만~1900만원 이상, 월 생활비는 관리비와 식비, 공과금을 합쳐 100~400만원 이상으로 주변 시세에 따라 다양하다. 그러나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지방에는 거의 없고, 운영사의 노하우 부족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이 지연되거나 부대시설이나 의료시설의 운영이 부실한 곳도 있다는 점에는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도심형 실버타운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도시 중심지에 위치하면서 백화점이나 쇼핑센터, 대중교통과 같은 각종 편의시설 및 병원, 문화공간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물론 도심형 실버타운은 전원형에 비해 높은 보증금 및 생활비, 분양금액에 대한 부담은 존재하나, 의료 및 편의시설 등의 장점이 크다. 건국대학교 '더클래식 500'은 서울 시내에 있는 도심형 실버타운으로, 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대학병원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대학 연계형 은퇴자 커뮤니티(UBRC: 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이다. 그 외 국내 도심형 실버타운의 대표적 사례로는 노블카운티, 더헤리티지, 노블레스 타워, 서울 시니어스 타워, 골든팰리스, 골든 빌리지 등이 있다.

“늘어나는 독거 노인의 주거 생활 역시 커뮤니티형 주거 모델이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후에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홀로 된다는 것이 더욱 두렵다고 한다. '나홀로'가 아닌 '함께 하는' 노후에서 행복을 찾아보자.”

커뮤니티형 주거 모델은 함께 하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좋은 대안

그간 국내 노후 주거 생활의 초점은 신체적 건강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그런 시설은 경제력이 있는 시니어만 이용할 수 있는 제한된 시설인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해외 사례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커뮤니티형 주거 모델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기존 형태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심리적, 사회적 기능까지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늘어나는 독거 노인의 주거 생활 역시 커뮤니티형 주거 모델이 좋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후에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홀로 된다는 것이 더욱 두렵다고 한다. '나홀로'가 아닌 '함께 하는' 노후에서 행복을 찾아보자.

더 행복한 생활을 위한 하나의 생각, 하나멤버스

하나멤버스와 함께하면 당신의 생활이 달라집니다.
가입하면 혜택이 쏟아지는 행복한 멤버십과 만나보세요.



HANA MEMBERS 하나멤버스

하나금융그룹 6개 관계사의 통합 멤버십 서비스. 저축부터 보험 가입, 카드 사용, 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거래를 통해 쌓인 하나머니와 제휴사 포인트를 합산하여 언제 어디서든 쉽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금융 멤버십 서비스입니다. 하나멤버스 회원이 되어 다양한 일상 속 행복을 누리보세요.

하나머니란?

연금처럼 사용이 가능한 하나멤버스의 통합 멤버십 포인트입니다. 하나멤버스 가입 고객은 누구나 하나금융그룹금융 거래 및 일반 가맹점에서 하나머니를 적립하고 연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적립해 편리하게 사용한다!
상상하는 모든 게 가능한 **하나머니**

- 연금처럼 ATM출금도 자유롭게!
- 내 계좌로 입금도 안전하게!
- '보내요'와 '주세요'로 친구와 주고받기도 다정하게!
- 가맹점에서 바코드 결제로 간편하게!
- 부족하면 내 계좌에서 충전도 빠르게!
- 다른 포인트와 교환하여 한꺼번에!
- 교통카드 충전도 손쉽게!

Hana Money 1 Click



모바일 Push 팝업에서 하나머니 **사용하기** '클릭'

어디서든
(어디서 써야 하는지 몰라도)

그냥 결제만 하고
(하나머니를 사용한다는 말 없이)

Cashier가
일반 결제 처리만 하면

하나멤버스 앱이
Push로 알려주니까

'사용하기' 탭 클릭하면
하나머니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 하나머니 잔액 천원 이상 & 매월금액의 20%까지 하나머니 사용이 가능합니다.

쉽고 빠르게 하나멤버스에 가입하세요

모바일 [하나멤버스]
앱 다운로드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 가입

하나멤버스
회원 가입 완료!

step 1

>

step 2

>

step 3

www.hanamembership.com

하나멤버스 를 검색해 보세요

Google play

App Store

정치 리스크 높아지는 동유럽 신흥국

동유럽 신흥국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

통화 약세와 유로존 경기 회복세 등에 힘입은

수출 개선과 원자재 가격 하락의 긍정적 효과 등으로

양호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적 불안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사항이다.

통화약세와

유로존 경기회복

등으로

동유럽 신흥국

펀더멘탈 크게 개선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기둔화, 원자재가격 약세와 재정악화 등으로 신흥국의 성장세가 전반적으로 둔화하고 국가 리스크도 상승하고 있다. 당사의 분석결과¹⁾ 신흥시장 불안이 고조되기 이전인 2012년에 비해 성장률, CDS프리미엄, 정부채무/GDP 등 대부분 지표가 악화하였으며, 특히 원자재 가격의 급락으로 중남미 국가의 리스크가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동유럽 신흥국은 통화 약세와 유로존 경기 회복세 등에 힘입은 수출개선과 원자재 가격하락의 긍정적 효과 등으로 양호한 성장을 유지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유럽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동유럽 신흥국은 2011년 유로존 재정위기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으나 이후 서유럽 경기회복과 대응능력 향상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아졌으며 국가 리스크도 완화된 것이다. 내전과 서방의 경제제재로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동유럽 신흥국의 평균 성장률은 2012년 1.2%에서 2015년 3.5%로 크게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경상수지 등 다른 거시지표도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으며, 금융 리스크도 여타지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원자재 가격 하락과

유로존 회복세,

EU 구조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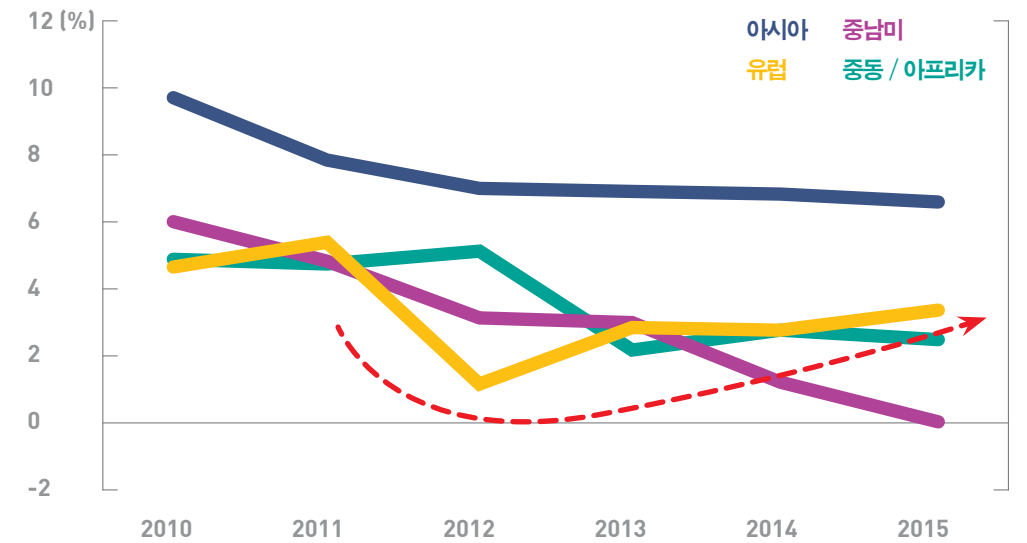
기금 활용 등으로

3% 내외의

높은 성장세 예상

주요 권역별 신흥국 GDP 성장률 비교

자료 : IMF WEO



향후 전망도 긍정적이다. 중국 등 신흥시장의 성장 모멘텀 둔화로 인한 글로벌 교역 및 자본 흐름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과 영국의 EU 탈퇴(Brexit) 이후 경기 부진 가능성 등이 글로벌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자재 가격 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중남미 및 중동/아프리카나 중국의 경기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시아에 비해 동유럽은 충격의 강도가 낮기 때문이다. 오히려 동유럽 신흥국은 원자재 가격 하락과 통화 약세로 인한 수출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16년 이후 동유럽 국가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유로존의 경기 회복세, EU 구조조정 기금 활용에 따른 투자활동 등으로 평균 3% 내외의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 확대와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로 인한 낮은 인플레이션 압력은 동유럽 국가들이 더욱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취할 수 있는 여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의 경우 유가 반등세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면서 경제 역성장세가 2016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우크라이나는 EU와 IMF의 금융지원 등에 힘입어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면서 의미 있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동유럽 신흥국은 경제 펀더멘탈에 비해 정치적 불안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상치 못한 영국의 EU탈퇴와 시리아 내전 등으로 인한 난민의 유입 등으로 민족주의적 우파정권의 세력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1) “펀더멘탈, 금융, 대응능력으로 살펴본 신흥시장 국가리스크 비교분석”,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6.4.27.

영국의 EU 분담금

중단으로

동유럽 국가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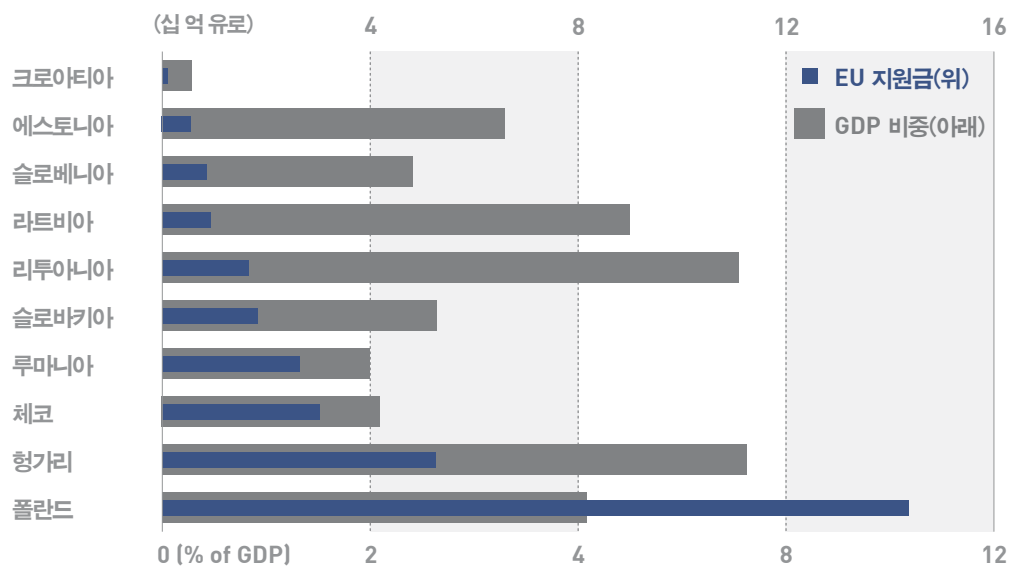
EU 예산지급이

축소될 우려

먼저 영국이 국민투표에서 'EU탈퇴(Brexit)'를 최종결정함에 따라 EU 역시 영국의 수입물량 감소와 투자둔화 등으로 타격이 예상된다. 독일 무역보험기관인 율러 헤르메스(Euler Hermes)는 브렉시트로 2017~2019년간 EU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이 각각 0.5%, 0.2% 감소하고 GDP 성장률도 0.4%p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동유럽 국가 역시 EU 경기둔화로 인한 충격 이외에도 수출 둔화와 대(對)영국 이민자 감소, 통화가치 하락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할 우려가 있다. 또한, 현재 EU는 동방확대전략의 목적으로 예산 중 1/4 이상을 폴란드,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 신흥 회원국에 지출하고 있는데, 브렉시트 영국이 부담하는 70억 유로 이상의 EU 분담금이 중단될 경우 동유럽 국가에 대한 EU 예산 지급의 조정이 불가피한 점도 동유럽 국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동유럽 국가 중 리투아니아와 헝가리 등은 EU예산 지원금이 GDP의 5%를 웃돌고 있어서 예산 지급이 축소될 경우 실물경제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큰 나라이다.

동유럽 EU회원국에 대한 EU예산 지원금 비교

주 : 2012년 기준, 자료 : EU Budget Office



난민급증으로

민족주의와 극우주의가

확산하면서

EU와의 갈등 심화

‘아랍의 봄’ 이후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등에서 내전을 피해 유럽으로 탈출하는 난민이 급증하면서 동유럽 경제 및 사회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발칸 반도와 아프리카 북부 등을 거쳐 유럽에 들어간 난민은 182.7만 명으로 전년(28.8만 명)대비 6배 이상 급증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난민의 정착과 회원국 간의 비용분담을 위해 유럽연합은 난민 쿼터를 정했지만 회원국들은 국내 분위기와 어려워진 경제사정을 내세워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대

규모 난민 유입에 시달리는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과 독일 및 프랑스 등 유럽연합의 중심국가와의 마찰이 심화하고 있으며, IS의 테러가 난민 때문에 발생했다는 대중정서가 확산하면서 EU 내 통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민족주의와 극우주의가 확산하면서 EU의 개방성이 훼손되고 있는 점도 동유럽 경제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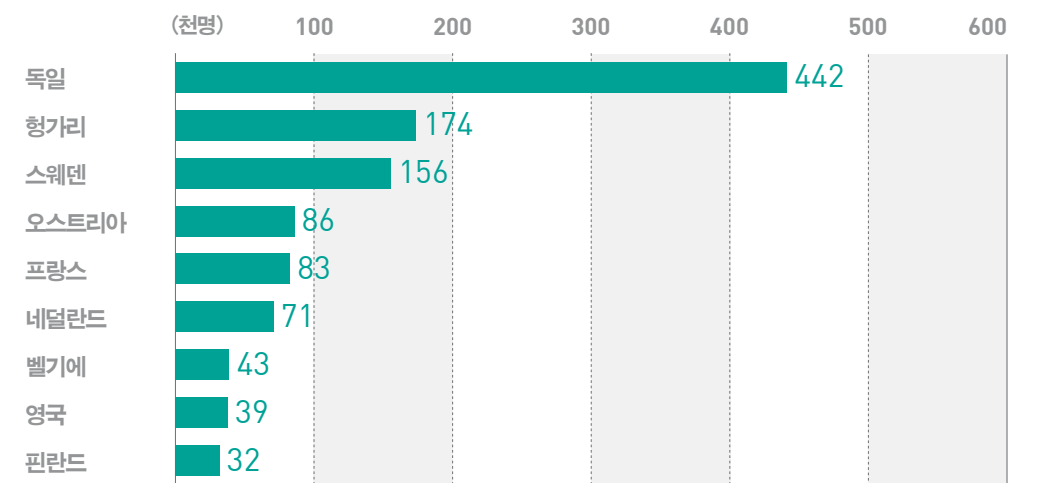
실제로 민족주의적 우파정권이 집권 중인 헝가리, 체코, 폴란드, 루마니아 등은 EU의 난민할당

제에 반대하는 등 EU와 갈등 중이며 EU탈퇴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특히 7개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헝가리는 난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오르반 헝가리 총리가 “난민은 독”이라고 표현하면서 EU의 난민 할당제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EU와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2010년 대통령 전용기 사고로 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된 폴란드도 크림반도 합병으로 인한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러시아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된 가운데, 작년 5월 대선과 10월 총선에서 극우성향의 법과정의당(PiS)이 연달아 승리한 이후 반(反)유로, 반(反)기업 정책이 강화되면서 민주주의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 EU와 갈등을 빚고 있다.

루마니아 역시 치울로슈 총리가 VAT 및 배당소득세 인하, 공무원 급여 10% 인상 등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EU로부터 ‘협력 검증 메커니즘(CVM)’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었으며, 체코는 25만 명의 체코국민이 EU탈퇴를 청원한 가운데 제만 체코 대통령이 EU 및 NATO 탈퇴를 묻는 국민투표를 제안하면서 EU와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주요 EU국가 내 난민 망명 신청 현황

자료 : 언론종합



NATO를

견제하기 위한

러시아의 위협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될 전망

러시아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이다. 크림반도 합병을 둘러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 외견상으로는 소강상태에 들어갔다. 양국가의 경기침체 및 서방의 러시아 제재 등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토(NATO)를 견제하기 위하여 우크라이나를 영향권에 두기 위한 러시아의 위협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러시아는 시리아 사태 개입, 터키와의 갈등 등도 이어지고 있어서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동유럽 신흥국은 대외환경 개선으로 펀더멘탈이 크게 개선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브렉시트의 후폭풍과 난민유입, IS테러, 러시아와의 마찰 등으로 정치적 리스크가 높아진 상황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정치적 불안정이 일상화되고 해결책의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양호한 펀더멘탈과 금융시장 환경을 바탕으로 국가 리스크가 매우 낮은 체코,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에 대한 투자기회 모색이 요구되지만, 정치적 리스크 확대에 대한 경계가 필요해 보인다.

재건축 시장의 두 가지 이슈, 금융규제와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아파트가 부동산

시장의 핫 이슈다.

당분간 이 인기는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

다만 올해에는

주택금융 규제강화,

내년에는 사업진도에 따른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 가능성 이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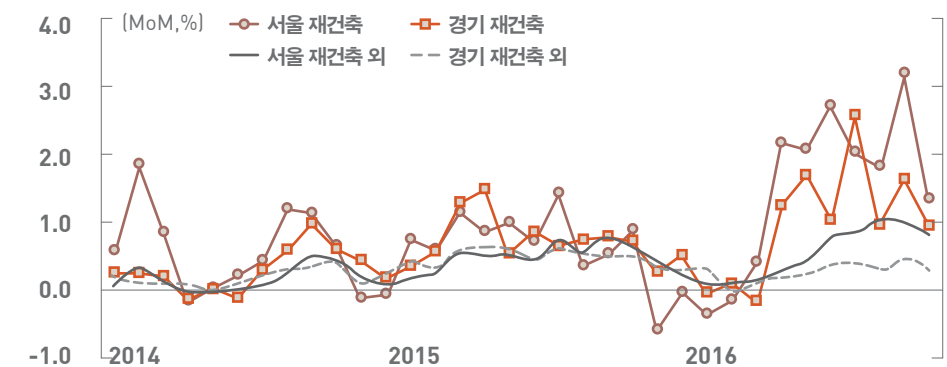


4월 이후 재건축 시장 가격급등세 지속

최근 주택시장은 재건축 아파트가 이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남 3구를 비롯한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등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고, 서울 목동 등 재건축을 앞둔 지역에서도 상승세가 뚜렷하다. 특히 4월 이후부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동안 강남 3구는 물론, 경기 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모두 아파트 평균가격이 10% 넘게 올랐다. 강남권 주요지역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평당 4,000만원을 넘어 5,000만원을 바라보고 있다.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도 최근 호가 기준으로 평당 4,400만원을 넘보고 있고, 2만 7,000가구에 이르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강동구에서는 4월 이후 무려 20%나 가격이 급등했다.

최근 가계부채 대책 부각으로 상승세 다소 둔화

10월 들어 재건축 아파트의 상승세는 다소 주춤한 상태다.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에도 수도권외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자 추가적인 주택금융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근 강남권 등 집값 상승지역 일부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경우 분양권 전매와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TI 상한이 40%로 축소된다. 규제강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9월 매주 1% 이상 상승했던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10월 이후 상승 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며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주 : 2016년 10월은 21일 기준 | 자료: 부동산114

올해에는 주택금융 규제강화,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사업진도에 따른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 가능성에 따라 가격이 출렁일 가능성이 크다.

시장 내에서도 입지가 우수하고, 사업 안정성이 높으며, 사업 진도가 빠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2018년 부활 예정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고려

초과이익환수제의 유예기간이 2017년 말로 끝난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추진위원회 구성 시점부터 입주 시점까지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개발비용을 뺀 금액)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익 규모에 따라 3,000만원 초과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2006년 도입돼 2012년까지 부과되었다가 2013년부터 2017년 말까지 시행이 유예되었다. 2017년 말까지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단지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최근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일례로 부동산신탁사가 재건축사업을 단독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이 필요 없어 사업시행인가까지 필요한 시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어, 인천·안양 등의 재건축 조합이 이를 채택한 바 있다.

매매차익이 크나 장기투자임에 유의할 필요

공급과잉 우려로 수요자들이 도시 내 인기 지역으로 몰리고 있어 수도권 재건축 아파트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올해에는 주택금융 규제강화,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사업진도에 따른 초과이익환수제의 적용 가능성에 따라 가격이 출렁일 수 있다. 시장 내에서도 입지가 우수하고, 사업 안정성이 높으며, 사업 진도가 빠른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재건축 아파트는 매매차익이 크지만 리스크도 높은 상품이다. 추진위원회 설립부터 입주까지 10년 가까운 오랜 시간이 필요한 데다, 조합 사업이다 보니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이다. 시세변화를 추종하기보다는, 긴 호흡으로 장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체 거래만 해도 다양한 금융 수수료 면제!

새출발 KEB하나은행이 드리는 통합기념 선물

행복 Knowhow
주거래 우대 통장

대한민국 1등 은행
KEB 하나은행

국내은행 중 자산규모 1위(2019년 6월 금융감독원 자료 기준)

행복한 내일을 설계하는 평생 주거래 우대 통장

① 전자금융수수료 무제한 면제!

급여, 연금, 카드대금, 아파트관리비, 공과금 중
1개 항목만 이체해도 전자금융수수료 무제한 면제!

② 통합 행복Together 적금 금리우대!

급여 또는 연금 이체 시 통합 행복Together 적금 금리 우대
(연 0.1% / 1년제에 한함)

※이 예금은 예금지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또는 KEB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바랍니다. 본법감시인 심사필 2015-광고-3054(2015.09.18)



2020 시니어 트렌드

인생 즐기는 새로운 어른의 시대

2020 시니어들은 적극적으로 삶을 즐기는 액티브한 인생을 원한다. 새로운 인간관계에 도전해 활동영역을 넓히고 있고, 각자의 개성을 반영한 라이프 스타일로 인생 2막 설계를 원한다. 일본 '하쿠오도 새로운 어른문화연구소'에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일본의 40대에서 80대를 대상으로 조사해 심층 분석한 결과다. 2020 시니어 트렌드를 살펴보자.

새로운 어른의 시대가 도래했다. 앞으로는 노인, 실버, 시니어라는 말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시니어들은 더는 고령을 의미하는 별도의 말로는 불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엘더(연장자)', '새로운 어른', '50+세대'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다. 단순히 옹어만의 문제가 아니다. 기존의 고정 관념을 뛰어넘는 새로운 어른의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데 주목할 만하다.

- 돈을 불려서 소비, 육식 선호

돈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기존의 고령자들이 저금을 선호했다면 새로운 어른들은 적극적인 투자 성향이 강하다. 경제적인 여유를 기반으로 원하는 것을 소비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선호한다. 기존의 고령자는 퇴직금을 저금한 후 묵혀두는 경우가 많았다. 묵힌 돈을 소비하기보다는 자손에게 물려주는 게 다반사였다. 하지만 새로운 어른들은 모은 돈을 주식, 보험 등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자산을 늘리고, 소비의 규모를 확대한다. 소비 분야도 취미생활, 건강, 패션 등 자신을 위한 소비가 대부분이다. 식생활에서도 기존과는 다른 모습이다. 보통 나이가 들면 소박하게 먹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인 시대였다. 육류를 먹지 않는 것이 장수의 비결로 꼽히기도 한다. 새로운 어른들은 육류를 즐긴다. 단백질 부족의 신형 영향 불균형 상태를 해결하고, 먹는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육류도 마다치 않는다.

- 엔터테인먼트, 안티에이징에 관심 높아

시니어들은 TV의 한정된 세계를 벗어나 영화, 라이브 공연, 미술관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문화생활을 즐긴다. 자녀가 독립한 후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생긴 그들은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생활의 영역을 확대한다. 주로 영화, 라이브 음악공연, 미술관을 찾아다니며 삶의 즐거움을 만끽한다. 듣고, 보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직접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하며 적극적으로 엔터테인먼트 라이프를 즐기는 추세다. 건강관리에서도 진화된 방식이다. 그들은 건강의 상당 부분을 병원에 의지하는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려고 한다. 병원 치료와 함께 마사지, 건강보조식품, 운동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건강을 관리해 나간다. 예방에 대한 개념도 철저하다. 안티에이징을 통해 가급적 지금의 몸 상태를 유지하거나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 은퇴 후 관광, 여행을 즐기는 시니어들이 많다. 기존에는 유명한 관광지를 찾아다니는 여행을 했지만 새로운 어른들은 가족, 친구 등과 함께 평소 가고 싶은 곳을 직접 정하고, 도보, 배낭 등 다양한 형식의 여행에 도전한다.

- 매스미디어 · 인터넷 적극 활용

미디어를 통해 인연을 만드는 정보연(情報緣)의 시대. 새로운 어른들은 친구와 이메일, 페이스북, 메신저 등으로 커뮤니케이션한다. 가족관계에서도 SNS를 통한 소통방식을 선호한다. 주로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구매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생필품을 산다. 그들은 스마트폰, 컴퓨터를 통해 건강, 취미 등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데 익숙하다. 패션 트렌드도 변하고 있다. 수수한 옷차림을 선호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탈피해 저마다 개성 가득한 디자인, 젊은이들의 스타일까지 소화하며 자신을 표현하기에 망설임이 없다.

참고도서 : 2020 시니어 트렌드 / 사카모토 세쓰오 / 한스미디어

- 2020 새로운 어른들	• 돈	저금 묵혀 놓는 고령자에서 돈을 불려서 소비
	• 식생활	소박한 식사 대신 육식 선호
	• 엔터테인먼트	시대극 보는 고령자에서 엔터테인먼트 즐겨
	• 건강	병원을 벗어나 예방 · 안티에이징 · 건강 관리
	• 여행	명소 관광하는 고령자에서 멋진 어른의 여행 즐겨
	• 자동차	운전면허 반납이 아닌 드라이브로 직접 운전 선호
	• 패션	수수한 옷차림에서 패션 센스넘치는 새로운 어른
	• 미디어	수동적 정보 수령자에서 매스미디어 · 인터넷을 적극 활용

배낭 하나 줍어지고, 자연 속으로 파고들다

가끔은 콘크리트 건물과 도로를 벗어나 바다가 보이는 숲으로, 섬으로, 들판으로 떠나고 싶다. 누군가와 함께가 아닌 홀로 배낭의 무게를 오롯이 짊어지고 자연 속으로 녹아드는 일, 홀로 백패킹을 떠나보자.

“

새로운 풍경에 가슴이 뛰고 별것 아닌 일에도 호들갑을 떨면서 나는 걸어가네
회파람 불며 때로는 넘어져도 내 길을 걸어가네 작은 물병 하나, 먼지 낀 카메라,
때 묻은 지도 가방 안에 넣고서 언덕을 넘어 숲길을 헤치고
가벼운 발걸음 닿는 대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천천히 걸어가네

김동률 '출발' 가사 중

”

한동안 캠핑 붐이 일었다. 거실과 룸 공간이 분리돼 있는 리빙셀 텐트와 6~7일은 거뜰히 식사를 할 수 있는 장비들, 캠핑에서 즐길 수 있는 맛있는 요리 정보가 차고 넘쳤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러 사람이 모여 한바탕 축제를 즐기는 듯한 캠핑을 벗어나, 가방 하나에 1인용 텐트와 필수 장비를 챙겨 홀로 떠나는 '솔캠(솔로캠핑)'이 뜨고 있다. '줍어지고 나른다'라는 뜻의 '백패킹(Backpacking)'은 1박 이상의 야영 생활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해변과 숲 등을 마음 내키는 대로 자유롭게 다니는 여행을 의미한다. 굴업도나 제주 비양도 등은 백패킹의 성지라 불리는 곳인데, 밤이면 백패커들의 작은 텐트와 촘촘히 텐트를 밝히는 불빛으로 장관을 이룬다. 백패킹의 매력은 무엇일까. 숲 속에서 조용히 커피를 끓여 마시고, 하늘을 이불 삼아 누워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일, 스치는 바람을 그대로 느끼며 좋아하는 음악을 감상하는 일은 홀로 떠나는 백패킹이 주는 낭만이다. 하지만 백패킹을 시작하려면 여러 가지 장비와 여행지 정보가 필요하다. 네이버 등 포털에 백패킹 관련 카페들이 많이 있으므로 카페에 가입해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게 좋다.

백패킹 초보를 위한 장비

배낭 안에 모든 장비를 넣어야 하므로 무게나 부피는 최소화하면서 실용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다. 배낭에 짐을 잘 분산시켜서 넣는 것이 중요한데, 침낭과 같이 가볍고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배낭 가장 아래쪽에, 허리부터 어깨까지는 조리기구 등 무거운 물건, 어깨 위쪽으로는 자주 사용하는 랜턴이나 음식물 등을 넣어 짐을 싸면 좋다.

* 필수장비: 배낭, 1~2인용 경량 텐트, 침낭, 경량일자, 어둠을 밝혀줄 헤드랜턴, 스토브, 1인용 코펠, 물통, 개인리류, 라이터, 만능칼 등

* 선택장비: 타프, 돛자리, 로프, 등산용 식탁, 선크림 등



하나금융그룹 New Vision!
신뢰받고 앞서가는 글로벌 금융그룹

행복한 온퇴를 위해
하나금융그룹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행복 knowhow

행복 미래 설계



하나금융그룹의
온퇴설계 통합 솔루션
행복 knowhow

통합 솔루션으로 완벽하게

• 어디서나 준비된 상품을 만날 수 있고,
동일한 온퇴설계 서비스를 제공

전문 시스템으로 탄탄하게

• 온퇴설계 전용 인프라 구축
• 일대일 맞춤 컨설팅 전문인력 제도 운영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로 든든하게

• 온퇴 전용 상품 운영
• 비재무 설계 서비스 통합제공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들은 상호 채무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하나은행, 외환은행, 하나대투증권,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하나증권은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기관이며, 하나 SK카드, 하나카드, 하나캐피탈은 부보금융기관이 아닙니다. ※금융회사는 금융투자상품에 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가입 전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투자 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6798호 2014.10.13~2015.09.28)

미래설계를 위한

행복 knowhow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7-3 하나금융투자빌딩 12층 | TEL. 02-2002-2200 | FAX. 02-2002-2610

KEB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생명, 하나카드